

# 간병인 과실로 환자 피해...요양병원도 책임

###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실질적으로 간병인 지휘·감독 범원 원심 깨고 배상 판결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실수로 환자에게 피해 발생했다면 병원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간병인 업무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기존 의견이었지만, 간병인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의 경우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A요양병원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부축하던 간병인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해당 요양병원을 상대로 “간병인의 사용자인 병원에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선 졌다. 기본적으로 간병계약의 당사자는 환자

와 간병사회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고, 병원은 간병사회와 소개약정을 하고 간병비 수수 대행만 했으므로 실질적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간병인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간병인들에게도 병원을 제공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 하므로 사고에 대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의료법상 병원이거나 종합병원이 아니라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의 요양과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라면서 “요양병원 환자에게는 의료용역과 간병용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근무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고, 간병료도 진료비와 함께 병원에 지급했다”며 “B씨가 간병용역을 의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A요양병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간병 업무가 환자와 병원 사이의 통상적인 의료 계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



추석연휴 광주비엔날레 복직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 ‘잊어버리기 위하여’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22~26일 2만5000여명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접촉자 14명

### 메르스 모니터링 해제

광주시는 26일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들의 최대 잠복기(14일)가 지난 21일로 종료됨에 따라 22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관리 중이던 광주지역 10명 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일상접촉자 4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제했다. 그동안 사·도는 대상자별 1대 1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증상 발생 모니터링을 했었다. 이들 대상자 모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메르스의 심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 정도가 높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광주지역 관리 대상자 1명은 자택 격리와 함께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집값 잡기’ 경찰도 나섰다

### 남구·광산구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 집중단속

광주지방경찰청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고 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까지 급증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들이 행정기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권을 동원해 직접 단속을 하고 위법행위

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 인터넷에 등록된 정상 매매에 대한 허위 신고(업무방해), 부동산 가격 담합(업무방해), 중개업자 허위매물 등록(업무방해)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형 지능범죄·사이버 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사이버팀이 주축이 돼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자체, 국제정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초중고생 한달 평균 9.3명 자살

### 최근 5년 전국 556명...광주 28명·전남 29명

최근 5년간 가정문제와 성적 등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이 광주·전남 57명 등 전국적으로 5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광산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정 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556명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111.2명, 한 달 평균 9.3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392명(70.5%)으

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141명(25.4%), 초등학생이 23명(4.1%)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3명(23.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7명(15.7%), 부산 44명(7.9%), 전남 29명(5.2%), 광주 28명(5%), 인천 27명(4.9%)이었다. 광산도 의원은 “자살 원인은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등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가정과 학교, 사회로 구성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4    달뜨기 19:54  
해질 18:23    달짐 08:06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침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다.

광주	맑음	13/25	보성	맑음	10/23
목포	맑음	14/25	순천	맑음	13/25
여수	맑음	17/23	영광	맑음	11/25
나주	맑음	11/25	진도	맑음	13/24
완도	맑음	15/25	전주	맑음	11/25
구례	맑음	9/24	군산	맑음	12/24
강진	맑음	12/25	남원	맑음	9/24
해남	맑음	10/25	흑산도	맑음	18/23
장성	맑음	10/24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동~동	0.5~2.0
	먼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1.5~3.0
남해	앞바다	북동~동	1.0~3.0	북동~동	1.0~3.0
	먼바다(동)	북동~동	3.0~4.0	북동~동	3.0~4.0
	먼바다(서)	북동~동	3.0~4.0	북동~동	3.0~4.0

### ◇ 생활지수

☀	주요
☀	식중독
☀	높음
☀	지외선
☀	중음
☀	미세먼지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37	20:55	03:27	15:47
여수	04:00	16:13	10:18	22:31

### ◇ 주간 날씨

28(금)	29(토)	30(일)	10/1(월)	2(화)	3(수)	4(목)
☀	☀	☀	☀	☀	☀	☀
14/25	15/25	16/24	16/23	14/23	12/23	13/24

## 광주 남구, 침수피해 소상공인 5000만원 특별보증

광주시 남구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구와 광주시농부중재단은 지난달 침수피해를 본 지역 상가와 업체를 돕고자 최근 특별보증 지원 확대를 합의했다. 기존에는 2000만원까

지원했던 특별보증 지원 상한선을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했던 보증료율도 0.8%로 고정한다. 남구에서는 지난달 27일과 31일 국지성 호우로 상가 99곳, 주택 18채, 공공시설 5곳 등 모두 177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복구에는 3억 6142만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국민의당 돌풍 이끈 임내현 전 국회의원 교통사고 별세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옛 국민의당의 ‘호남 녹색바람’을 일으키는데 공헌했던 임내현(사진) 전 국회의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향년 66세. 26일 서울 서초경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난 21일 새벽 4시께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근 8차선 도로를 건너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 임 전 의원은 인근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74년 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고, 전주지

검장·대구고검장·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 광주 북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국민의당을 거쳐 바른미래당 공동법률위원장과 서울 송파구 갑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20대 총선 공천에서 광주 지역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탈락한 뒤에도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향본부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국민의당 돌풍을 이끌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2018-GN1-33-0021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대한보청기 맞춤형 렌탈

## 추석맞이 특별할인 행사

1. 가입비 없음

3. 월 4만원대로 고가의 보청기를 쉽게 사용

2. 5년 만기 시 **본인 소유** (의무 사용기간 2년)

4. A/S, 배터리 등 모든 **제반서비스가 무료!!**

부담이 적으므로 양쪽으로 잘 들으실수있습니다!!

◆장안본사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부(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 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251-4999**